

설화에 나타난 작중인물 간 공감의 형태와 장소에 관한 고찰*

- 카이로스적 의미로서의 공감의 시공간

한지원 **

<차례>

1. 서론
2.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설화 속 공감의 형태와 시공간
3. 공감의 시공간과 그 카이로스적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설화에 나타난, 작중인물 간 공감의 형태와 장소에 관한 고찰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규칙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질서로써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규칙이 간과하고 있는 혼란의 공간을 채우는 질서의 핵심에 공감,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다는 가능성을 설화를 통해 탐구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중 구조하고 얻은 명당>, <죽을 사람 살리고 고생 끝에 얻은 명당>, <팔려간 정승 딸 구하고 복 받은 남자>, <첫날 밤 간부 잡아주고 벼슬한 사람>, 그리고 <초상집 며느리 구한 칠삭둥이 명당> 설화들의 공통점은 공감의 주체와 타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주체의 형편은 타자를 공감할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며, 주체의 도움을 받은 타자는 이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기 위한 노력을 하기에, 결국 공감의 주체와 타자는 모두 행복해지는 결말이다.

공감의 주체들이 자신의 의지로 타자를 향한 이타적인 도움을 결정하는 장소, 즉 시공간은, 그가 객관적이고 선형적이며 무한히 흘러가지만 하는 크로노스의 시

* 이 논문은 202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 A17090808).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간 속에서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다.

공감은 기술이고, 기술은 교육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이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러 시대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민중들이 서로를 공감하며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과 일치되어, 어려운 순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감의 구조, 공감의 장소, 크로노스, 카이로스, 구비 설화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설화에 나타난, 작중인물 간 공감의 형태와 장소에 관한 고찰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살아가는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이 규칙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질서로써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규칙은 많은 경우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순하게 그 규칙을 지켰는가, 위배했는가로 잘잘못이 따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지켰거나, 위배했을 때 각 개인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엄청난 양의 판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엄청난 양의 판례도 부족해서 거의 매일 새로운 판례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세상에는 규칙이라는 질서가 아닌 또 다른 질서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혼란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공감의 질서이다. 혼란의 공간을 채우는 질서의 핵심에 공감,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다는 가능성을 설화를 통해 탐구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공동체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소통은 상호 간의

공감에서 시작되며, 서로의 처지와 갈등 혹은 문제점을 이해하고 같이 느끼며 해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인간 사회의 갈등 해결은 소통과 공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소통과 공감은 전 인류적인 사회 구성의 기본원리인 셈이다.¹⁾

여기서 사회란 인류가 시작되고부터 생겨난 공동체에 의한 조직으로, 개인이 태어난 시점부터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소속되는 장소이다. 이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란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선택이 아닌 그저 주어지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며, 그 누구도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살아갈 수 없고,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선택 없이 주어지는 장소와 시간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삶은 다양하게 전개되며, 그 선택과 의지는 개개인의 가치와 의미에 의해 결정되게 마련이다. 즉, 개개인에게 다양하게 전개되는 이러한 장소와 시간은 각 개인의 삶이 된다. 하지만 개인의 삶은 혼자 만들어갈 수 없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삶이지만 같은 시공간 속의 타인과 함께 이를 만들어가게 된다. 그러기에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를 향한 소통과 공감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맞게 되는 삶의 혼돈 속에서, 그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설화 속 작중인물 간 공감에서 찾아보는 실험적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각각의 시공간을 지닌 개개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구비 설화를 찾아보고, 작중인물 간 공감의 형태와 그 의미를 시공간의 두 가지 개념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누구

1) 이재룡, 「조선 시대 법 제도에서의 공감과 소통정 구조」, 『사회사상과 문화』 21(2), 동양사회사상학회, 2018, 131쪽.

에게나 공통으로 주어지는 시간인 크로노스와 특별한 기회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차이를 살펴보고, 공감의 시공간과 카이로스의 접점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는 시도가 될 것이다.

문학과 공감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학에서 추구하는 바가 독자의 공감이기 때문이다. 독자로 하여금 서사에 공감할 수 있도록 문학은 여러 가지 기제 및 전략을 사용한다. 그중 하나가 실제 삶에서 공감이 일어나는 순간을 문학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작중인물 간 공감의 소통 문제가 그것이다.

나승만은 구비문학의 연구에 있어서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민중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필요하다는 신념 때문이다.²⁾ 그는 구비문학의 세계는 인간의 삶의 모든 국면이 담긴 자료의 광장이기에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찾아내야 함을 이야기한다.³⁾ 그렇기에 구비문학 내 작중인물 간의 관계와 소통의 중심이 되는 공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중들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기술인 공감은, 원시시대의 신화에서 지배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오랫동안 강조되어왔다. 또한, 문학 및 문화가 공감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의 가치를 중요시해 온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과정에서의 공감 교육을 다루는 것과 또 그에 관련한 연구를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것에서 현대에서 생각하는 공감의 가치는 예전에 강조하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연구 성과 중 류동규⁴⁾는 현대문학을 통해 공감의 플롯⁵⁾을 설명하였다. 현대문학과 달리 설

2) 나승만, 「구비문학과 상상력-민중들의 이야기 네트워크를 상상한다」, 『구비문학연구』 60, 한국구비문학회, 2021, 7쪽.

3) 나승만(2021), 위의 논문, 10~16쪽.

화에서는 ‘외연적 사건’ 및 인물들의 내면적 상태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경우가 많기에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직접적이고 외연적인 사건의 부재에도 보편적인 추론으로 사건의 정황 및 맥락으로 공감을 추출할 수 있다.⁶⁾ 이를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구조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감의 구조를 담은 설화는 공감의 가치로 인해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올 수도 있는 이유 및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공감이 교육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이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개인의 공감 개념을 발달시키고 또한, 후대까지 전승하려는 설화 향유층의 바램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감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설화들은 주로 관용에 의한 선과 덕, 이해와 믿음으로 해결되는 파격적 갈등, 종교적인 생명력의 발현으로 인한 상대방의 구원, 공동체적 가치(공생의 윤리), 선행, 보은 등의 의미로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홍나래⁷⁾는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는 혼전임신이라는 당대로서는 파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남편의 아내를 향한 포용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설화라는 점을 살피고 있다.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준 관용은, 남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한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내면적 힘이 존재하였기에 실현 가능하였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선(善)과 덕(德)이 실제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설화 향유층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4) 류동규, 「타자 이해를 위한 ‘공감의 플롯’ 읽기」, 『국어교육연구』 71, 국어교육학회, 2019, 237~272쪽.

5) 류동규가 정의한 공감의 플롯은 타자에게서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공감의 주체가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그 타자에게서 본인과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해 타자를 공감하게 되는 과정이 서사에 나타나는 플롯이다. - 위의 논문, 239~240쪽.

6) 이는 서사 인지학의 영역이다.

7) 홍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의 의미와 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회, 2011, 197~226쪽.

최진형⁸⁾은 가족관계에서 나타난 ‘갈등’을 다룬 구전설화 중에서 ‘파격’이 발생한 경우를 고찰하였다. 그 중 〈백정 아들과 결혼한 정승의 딸〉 유형은 정승 딸이 신랑 될 사람이 백정임을 모르고, 속아서 한 혼사였음에도 이에 분노하거나 체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어려운 난국(難局)을 타개해 나가고자 노력한다는 점, 배우자의 잘못을 덮어주고 함께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였다. 즉, 파격적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신부의 이해와 믿음을 향유 하며 전승하고 있다고 하겠다.

김혜미⁹⁾는 〈불공으로 얻은 꽃〉 설화를 통해서, 비록 신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일반인이 자신의 공간인 ‘집’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그릇에 ‘담아’ 줌으로써 생명성을 매개하는 밥과 꽃의 의미에 대해 강조하며, 밥과 꽃의 생명력이 상대방을 구원하는 행위로 귀결됨을 보여주었다.

이인경¹⁰⁾은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 속에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소통·공감·보살핌의 윤리”가 녹아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등장인물인 산신령과 호랑이 그리고 총각을 통한 서사 전개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행복을 위해 함께 살아가며 노력하는 ‘우리들’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호랑이와 사람 간의 공감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작중인물 간 공감이 실현되는 서사를 담고 있는 설화들에서 나타나는 관용에 의한 선과 덕, 이해와 믿음으로 해결되는 파격적 갈등, 생명력의 발현으로 인한 상대방의 구원, 공동체적 가치(공생의 윤리), 선행, 보은 등은 주체의 타자에 대한 공감의 구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나타나기

8) 최진형, 「구전설화에 나타난 ‘파격’ -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상황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75~114쪽.

9) 김혜미, 「구비 설화 〈불공으로 얻은 꽃〉의 ‘밥’과 ‘꽃’ 화소를 통해 본 생명 구원과 신성 확보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60, 한국구비문학학회, 2021, 161~194쪽.

10) 이인경,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 속의 ‘소통·공감·보살핌 윤리」, 『국문학연구』 27, 국문학회, 2013, 233~263쪽.

힘든 현상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선행, 보은, 파격, 공동체적 가치, 생명력의 발현 등으로 나타나는 설화들에는 그 서사의 과정 속의 근본적 바탕이 곧 공감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탐구 방향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이거나 이물의 힘을 빌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의 구조의 형태와 시공간의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설화에 나타난 각각의 서사 내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행위 및 감정표현을 통해 인물과 인물 간 상호 관계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공감의 다양한 형태를 찾아보고, 이로써 고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의 단순해 보이는 구조 속에 대다수 민중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민중들의 생활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있음을 객관적으로 재확인 및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설화 속 공감의 형태와 시공간

1) 공감과 공감의 구조

공감이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느낌, 감정, 그리고 사고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된 바를 정확하게 상대방과 함께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¹¹⁾ 이러한 능력을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고, 논어에서 공자는 사람이 평생 실천해야 할 바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恕)’라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

11)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1, 246쪽.

공감(共感)은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며,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자기의 내부로 옮겨 넣어, 타인의 체험과 동질의 심리적 과정을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다.¹²⁾ 주희(朱熹, 1130-1200)는 '서(恕)'에 대해 '자기를 미루어 사물이나 사람에 나아가는 것(推己及物(人))'이라고 주석을 달기도 했다.¹³⁾

그러나 이러한 공감에 대한 동양 철학에서의 개념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공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많은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에 대한 철학적 정의를 명료하게 찾아볼 수는 없다. 이에 공감과 동감(同感), 동정(同情) 등의 유사한 개념들이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동감은 '어떤 견해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가짐. 또는 그 생각'으로 정의하고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김'으로 정의한다. 동감은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에, 공감의 바탕에는 공감하는 주체와 타자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을 기반으로 한다.¹⁴⁾ 동정은 거울 뉴런이나 생리적 기제 등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생성되는 반면 공감은 이러한 동정 및 연민의 감정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12) 정갑임, 「왕양명의 심학(心學)과 공감」,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337쪽.

13) 정갑임(2019), 위의 논문, 337쪽.

14)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상담 현장에서 상담사가 공감이 아닌 동감으로 내담자를 다룬다면, 내담자가 상담자 자신과 비슷한 자기 경험, 또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때에 오히려 내담자와의 공감적으로 연결되었던 것이 끊어지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는 동감할 때 상담사가 자기감정이나 이슈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정갑임은 동정을 인(仁)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의 의미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공감의 중립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상대를 가엾이 여기는' 의미를 보여주는 동정(pity)과 공감 또한 구별하려고 시도하였다. - 정갑임, 위의 논문, 334쪽.

김용환은 공감과 동정(연민)이 모두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 모두 타자의 감정, 느낌 등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정심과 연민은 감정으로 존재하고, 공감은 동정과는 달리,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심리적 작동 원리 또는 힘으로 설명하고 있다. - 김용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철학』 76, 한국철학회, 2003, 161쪽.

의지로 나타나는 일종의 기술이다.

공감이란 다시 말하면, 자신과 다른 타자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따라서 타자의 감정, 생각, 욕구, 소망, 갈등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하므로 타자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된다. 이에 공감은 인간 관계 형성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며, 그 민감성에 대해 각각 개인차는 있지만, 공감이 일종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은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¹⁵⁾ 이것이 공감과 동감 또는 동정과의 큰 차이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감은 공감의 주체가 자기 의지로 스스로 발현함으로써 덕, 의, 윤리 실천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주체뿐 아니라 타자의 가치관 및 세계관의 긍정적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¹⁶⁾ 그렇기에 공감은 여러 세대를 거쳐 교육될 수 있으며 교육되어온 개념이기도 하다.

다양한 공감에의 정의가 공존하지만, 그 모든 다양한 공감이라는 정의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공감의 구조를 정의하고자 한다. ‘타자’, ‘타자의 감정’, ‘감정의 전이’, ‘전이된 감정의 이해’, ‘타자의 감정을 전이 받은 공감의 주체’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공감의 요소들로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공감의 공통적 요소에 수반되는, ‘타자의 고통을 해소시키고자 행해지는 노력, 즉 타자를 위한 이타적 도움’이 있다. 공감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과 이에 수반되는 이타적 도움¹⁷⁾을 서사 내에 배치하여

15) 브레네 브라운, 서현정 역, 『나는 왜 내편이 아닌가』, 북하이브, 2012, 72쪽.

16) 한지원,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설화에 나타나는 공감의 양상과 의미 - 혼사 소재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 『우리문학연구』 69, 우리문학회, 2021, 252쪽.

17)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에 관한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특별히 개인적인 특수 목적이 아닌 순수 이타적 행동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타적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매개 변인으로서의 공감 또는, 기제로서의 공감의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한 논의 역시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자들이 공감이라는 것에 크게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감이 순수 이타적 행동과 연계되는 많은 현상을 나타내고, 또한,

이야기를 생성하며, 이러한 구조가 서사의 대표적 주제가 되는 것을 공감의 구조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설화들을 대상으로 공감이 나타나는 시공간과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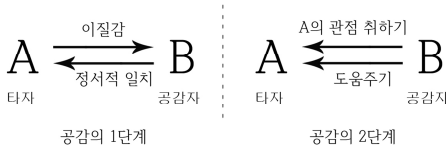
2)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설화

사람 간의 공감을 주제로 서사가 전개되는 구비 설화들을 대상으로 하되, 종교적인 힘에 의한 것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경우나, 또는 의무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타인을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나타나는, 삶 속에서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혼돈 속에서 온전히 공감의 힘으로,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타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이타적인 도움을 행사하는 이야기가 실린 설화들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와 문학치료 서사 사전을 중심으로, 〈중 구조하고 얻은 명당〉, 〈죽을 사람 살리고 고생 끝에 얻은 명당〉, 〈팔려 간 정승 딸 구하고 복 받은 남자〉, 〈첫날 밤 간부 잡아주고 베풀한 사람〉, 그리고 〈초상집 며느리 구한 칠삭둥이 명당〉 등과 같은 유형의 설화에서 이러한 구조를

이에 공감과 이타적 행동이라는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감-이타주의 가설’(empathy-altruism hypothesis)은 베타슨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밝힌 것으로, 공감적 감정을 느끼게 되면 타자를 도와주려는 이타적 동기가 발생한다는 원리를 제시하고, 잇따른 다른 연구들에서도 공감이 바로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원천이 된다는 결과들을 밝히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은 순수 이타 행동을 더욱 촉발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 박성희(2004), 앞의 책, 72쪽.

18) 공감의 구조



- 한지원(2021), 위의 논문, 240쪽.

찾아볼 수 있다.¹⁹⁾

〈중 구조하고 얻은 명당〉²⁰⁾ 설화의 경우 주인공 모자가 궁핍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굶어서 쓰러져 가는 사람을 구제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공감의 주체인 주자의 부모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배고픈 타자인 중에게 이타적 도움을 수행한다.²¹⁾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타

19) 본 연구에 대표적으로 사용된 설화의 제목은 『문학치료 서사 사전』에 사용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문학치료 서사 사전』에서 그 기본 서사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들 이외에도 공감의 주체와 타자, 타자에 대한 공감과 이타적 도움, 그리고 타자의 은혜갚음이 나타나는 이야기는 더 찾아볼 수 있으나, 대부분 이와 비슷한 구조와 형태로 나타나기에 대표성을 띠는 본 5편의 설화들로 작중인물 간 공감의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0) 〈중 구하고 얻은 명당〉 설화의 이본 현황

순번	제목	출처 (『대계』/첫 쪽 수)	채록지	제보자
1	묘 잘 쓰고 얻은 주자(朱子)	7-13 / 657	대구시	신학균(남, 86)
2	학성산의 명당	4-3 / 681	신창면	전영석(남, 81)
3	윤보선 선조 묘지 전설	4-3 / 68	은양읍	조상목(남, 79)
4	뜯감 명당	6-2 / 245	엄다면	김정균(남, 88)
5	애천 박씨 시조 명당 얻기	6-10 / 438	도암면	김기수(남, 72)
6	한양 조씨 9대조 묘 쓰던 이야기(고자대감)	2-8 / 32	상도읍	안정필(남, 73)
7	서특리 허씨네의 별동혈 명당	8-11 / 633	봉수면	박봉춘(남, 68)
8	은혜갚은 중	4-2 / 646	진잠면	유득창(남, 70)
9	묘자리 잘 써 부자 된 권씨	7-8 / 1040	화서면	최승락(남, 76)
10	젓으로 사람 살린 새댁	6-10 / 98	능주읍	노재구(남, 55)
11	아사 직전의 성재 구해주고 얻은 묘터	7-11/ 507	효령면	김한수(남, 60)
12	박문수 살리고 당대 발복한 이야기	3-2 / 672	남일면	이병우(남, 72)

21) 다른 각편들과 달리 〈학성산의 명당〉에서는 공감의 주체가 ‘권집(주인집)’ 이고, 타자를 도와주는 것이 음식이 아닌 바지저고리로 나타나고 있다. 공감의 대상인 타자를 ‘그 사람이 어떤 혼탈병일 입구 저녁에 들어왔는데 앓더라여.’라고 설명을 하며, 이 이야기에서는 공감의 주체인 권집(주인집)에서 그 사람이 앓는 동안 치(치료)를 모두 해주고, 바지저고리까지 새로 해서 입혀 보낸 것으로 그려진다. 주인집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주인집’이라는 표현에서 혈연이나 공감의 의무감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인집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혼탈병을 입고, 또 앓아도 치료해줄 사람이 없기에, 그 처량함과 불쌍함에 동정 또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새 바지저고리를 지어주지만,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게 자신의 바지저고리를 벗어주는 선행의 마음을 주인집은 공감했기에 계속해서 다시 혼탈병이

적 도움을 실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선취로 인해 후취의 희생을 감당하겠다는 공감 주체의 선택이고 의지이다. 이로 인해 타자는 삶을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타자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명당을 찾아줌으로써 보답한다. 명당은 여러 풍수 설화에서 복이 나오는 통로로 이해된다.²²⁾ 이에 후에 이 집에서 주자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 공감의 주체는 자신의 쉽지 않은 선택과 의지로 큰 복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 공감의 주체는 주자의 부모이며 타자는 굶어 쓰러진 중이다. 주체에게 전이된 타자의 감정은 쓰러질 정도의 배고픔이다.

... 그 무안 박 가의 시조제. 놈의(남의) 집을 살아. 그에 인자 소를 가지고 와서 눈을 갈아. 그대 술찬걸이를 내다 주니까 중 한나가 지내다가,

“아이 총각 내가 어응 지내다가 배가 고파서 못 견디었으께 그 술 찬밥 좀 얻어 먹자.”고

“아 그 이리 와 자시라.”고

그대 다 쫓단 말이여. 그대 먹었어. 궁게 그 중이 술참을 먹고 가지를 안해. 눈뚜렁에 앙거서(앉아서) 놀아. 중이 다 먹어버렸어. 또 같이 따라 나와 눈뚜

로 나타나는 그 사람을 위해 이타적 도움을 발현하는데 이는 서너 번이나 새로 바지 저고리를 지어준다. 이 이야기 속에는 비록 전체적인 줄거리 속 공감의 주체가 되는 주인집이 빈자로 설정되지는 않지만, 빈자인 혼탈뱅이를 입은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공감하여 도와주고, 이 마음을 혼탈뱅이를 입은 사람의 주인이 다시 공감하고 이타적 도움을 준다는 구조로 나타나며, 빈자가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공감의 구조가 역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혼탈뱅이를 입은 사람은 주인집의 도움에 대한 은혜 갚음으로 좋은 묘자리를 알려주고, 이에 주인집이 대성한다는 이야기이다.

- 22) 이에 홍나라에 의하면 희생 명당 설화들에서는 언제 복을 받을지 모를 불분명한 선행보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명당을 소유함으로써 복을 가능하면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소유하고 받으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 홍나라, 「희생 명당 풍수 설화에 나타난 구복(求福) 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일고찰 - 「사자생손형(死子生孫型)”, “유복자삼정승형(遺腹子三政丞型)”, “재취후손형(再娶後孫型)”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141쪽.

렁에 앙거 놀아. 그래 저역을 먹으러 들어가니 또 따라 들어와. 아 그 때는 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못전딜 것 같으게 쥘 보고,

“중이 이리이러 하고 그러니 중 밥 한 끼 주자.”고 허옹게,

“아 그러라.”고 중 밥을 미졌어(먹였어).

중 주라는 밥은 자기가 먹고 자기 밥은 중을 밀어주었드라 밀이여. 그래 자알
먹었제. 〈똥감명당 中〉²³⁾

〈똥감명당〉에서 공감의 주체로 나타나는 남의 집을 사는 총각은 자신도
논일하고 허기졌을 것이 분명하지만 배고픈 중에게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못전딜 것 같으게” 밥을 두 번이나 대접하게 된다. 자신의 술참을
다 먹어버린 중에게 저녁까지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공감의 주체와 타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공감의 주체는 타
자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며, 이 선행으로
인해 후에 큰 복을 받고자 하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지도 않다.²⁴⁾

타자가 〈묘 잘 쓰고 얻은 주자(朱子)〉, 〈윤보선 선조 묘지 전설〉, 〈똥감
명당〉, 〈서득리 허 씨네의 별통혈 명당〉, 〈은혜 깊은 중〉 이야기에서는 중
또는 스님이라는 신분으로 나타나지만, 〈학성산의 명당〉, 〈한양조씨의 9대
조 묘 쓰던 이야기〉, 〈묘자리 잘 써 부자 된 권 씨〉, 〈아사 직전의 성재
구해주고 얻은 묘터〉, 〈박문수 살리고 당대 발복한 이야기〉 등의 각편에는
중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영감, 이성재, 박문수라는 일반인으로도 나타나므
로, 이를 종교적 이야기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3) 『대계』 6-2, 245쪽.

24) 〈학성산이 명당〉을 제외하고 다른 각편들에서는, “‘놈의(남의) 집을 살아.’〈똥감 명
당〉, “그마 영감이 그만 세상을 떠나뵈기라..앞으로 살 일도 생각나고...집에는 준비
한 거는 개떡 인자 서말지기 술에 한 술 쥘 난 그것뿐이라.”〈서득리(西得理 허 씨네
의 별통혈 명당〉라고 설명하며 공감의 주체가 넉넉지 않은 형편임을 설명한다. 〈박문
수 살리고 당대 발복한 이야기〉에서는 공감의 주체의 가난한 정도를 줄 것이 없어,
갓난아이 때문에 잔뜩 분 젓을 먹여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명당과 관련된 또 다른 설화는 <죽을 사람 살리고 고생 끝에 얻은 명당>²⁵⁾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공감의 주체는 각편에 따라 가난한 사람, 또는 만석꾼, 혹은 정승집이었으나 살림이 어려워진 사람들이다. 몰락한 정승집 가난한 아들은 사는 것이 끼니도 잇기 힘들 정도로 힘들게 되어, 이전 중으로부터 생계를 위해 돈을 빌려온다. 오죽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종보다도 살림이 어려워져서

25) <죽을 사람 살리고 고생 끝에 얻은 명당> 설화의 이본 현황

순번	제목	출처 (『대계』/첫 쪽 수)	채록지	제보자
1	보은(報恩) 이야기	1-2 / 119	여주읍	안평국(남, 83)
2	죽을 목숨 살린 돈 천 냥	7-9 / 777	북후면	강대은(남, 81)
3	천 냥의 보은	8-13 / 140	온양면	김원연(여, 65)
4	세 사람 구한 돈 삼천 냥	2-9 / 770	주천면	이상진(남, 71)
5	적덕하여 받은 복(2)	5-7 / 337	오동면	김창기(남, 68)
6	종의 보은으로 다시 부자 된 정승택	7-18 / 412	개포면	임원기(남, 75)
7	남 도와주고 복 받은 사람	4-5 / 149	부여읍	천준기(남, 66)
8	은혜를 베푼 댓가	5-5 / 88	정주시	한태식(남, 70)
9	적선하여 명당자리 얻고 부자 된 선비	7-14 / 667	하빈면	정수달(남, 57)
10	퇴재상 윤대감의 선행(善行)	4-4 / 168	대천읍	윤우식(남, 87)
11	무명 두 필 적선하고 부자가 된 이야기	3-3 / 80	단양읍	주달업(남, 71)
12	활인(活人사람의복숨을살림)해서 얻은 묘지	4-3 / 475	둔포면	홍원유(남, 81)
13	허생원의 활인담(活人談)	2-2 / 539	남면	박찬웅(남, 48)
14	적덕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4-4 / 38	대천읍	임성호(남, 77)
15	삼천 냥의 보은(報恩)	4-2 / 58	신단진읍	오영석(남, 72)
16	적선하고 얻은 묘터	7-15/138	구미시	서필금(여, 74)
17	적선하고 복 받은 사람	4-6 / 225	의당면	유조숙(여, 75)
18	착한 아내가 찾아낸 금덩어리	5-1 / 499	금지면	오효임(여, 67)
19	하서 선생의 선심	7-2 / 262	외동면	안순목(남, 70)
20	명당 잡은 이야기	7-6 / 310	달산면	이기영(남, 70)
21	뒤늦은 천석꾼 살림	7-3 / 34	내남면	김경달(남, 68)
22	자비의 댓가	5-5 / 58	정주시	정순종(남, 83)
23	적선한 부친 덕에 부자 된 일가	7-15/134	구미시	서필금(여, 74)
24	자기는 굶고 남 먹인 선량	7-5 / 297	벽진면	김귀분(여, 68)
25	참혹하게 가난한 사람의 보은	7-1 / 400	현곡면	이선재(여, 61)
26	어진 사람이 받은 복	7-5 / 135	초천면	박정순(여, 55)
27	적선(積善)한 자손	2-4 / 408	현북면	김진호(남, 77)
28	천석지기 명당	5-7 / 334	웅동면	조정동(남, 85)

그 종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양반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게 가난하지만 이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타자를 만나게 된다. 타자의 아들이 나랏돈을 갚지 못해 처형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 어머니와 아내가 서로 죽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종에게 어렵게 빌린 돈을 타자를 위한 도움으로 다 내어놓게 되며, 이로 인해 후에 도움받은 타자가 명당으로 은혜를 갚게 되어 잘살게 된다는 내용이다.

“아무 데 아무 데 오다가 어떤 참 노모가 죽을라 캐서, 그 소부인은 못 죽그러 말리고, 그 내력을 물었습니다. 물으이께네 죽을라 키는 이는 이방의 모친이고 말리니는 이방의 맥이래요”

“그래.”

“어에 그로 키이께네, 나라 돈을 천 냥을 써부레가주고, 이 돈 천 냥이 있으면 사겐데(살 것인데), 돈 천 냥이 없어서 그 날 되면 우리 양반이 죽는다고 우리 시모가 자석 죽기 전에 죽을라꼬 하는 걸 내가 말리다 보이께네, 그레이(그러니) 말리고 빠질라 카저이, 그 내력을 물으께, 그래가지고설랑 내가 그 수표를 주고 왔니다.”

〈죽을 목숨 살린 돈 천냥〉 中²⁶⁾

〈죽을 목숨 살린 돈 천냥〉에서 예전에 잘 살던 집 아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아버지에게 설명하는 내용에서, 이방의 시모와 며느리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잘 살던 집 아들은 처음에는 그냥 말리려고만 하였으나, 그들이 죽으려는 이유를 알고난 후, 빌려온 돈 천냥을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이타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던 아들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그 어른이(잘 살던 집 아들의 아버지),

“아야, 우리 굶는데 어에 주고 왔노?”

26) 『대계』 7-9, 779쪽.

소리 아 하고,

“아야! 잘 했네이. 참 잘했다. 우린 아무래도 산다. 우린 굶어 죽질 아 한다. 니가 목숨 마이(많이) 살렸다. 마이 살리는 게 우선에 그 노모 할마이 살렸지. 이방이 죽으면 이방이가 아들들이 몇이나 있는동 아냐? 니가 목숨 마이 살렸다. 가령 그 시모가 죽을 같으면 그 소부인도 같이 죽으겠다. 같이 죽을 모양이, 그 소부인이 죽으면(죽으며는) 그 소부인 아들들이 마구 머 죽을 게 더러 아 있나 니가 영 참 사람 마이 살렸다.”

고 자꾸 치사를 하단 말이래. 그래, 그 두 분 다가 참 장하지.

〈죽을 목숨 살린 돈 천냥 中〉²⁷⁾

특이한 것은 가난한 아들이 종에게 빌려온 돈을 모두 타자에게 주고 온 행동을 정승집 가족들이 모두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빌리러 종에게 가는 상황은 자신의 집이 살기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이고, 이는 정승집 가족들이 모두 동의하고 원했던 바이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타자에게 빌려온 돈을 모두 내어준 사실에 대해, 정승 집 가족들은 아들을 칭찬하는 모습이다.

박상란²⁸⁾은 빈자,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자기보다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를 계기로 훗날 잘살게 되는 이야기와 빈자가 여러 가지의 구제행위를 함으로써 복을 실현한다는 이야기를, ‘욕망의 포기’로 인한 행운’형과 ‘이타적 행위와 부의 유통’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는 빈자들이 일반적으로 잘 살고 싶은 욕망을 뒤로 하고 공생의 윤리를 택하였음을 밝혔다. 그러한 공생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는 것이 주체의 타자를 향한 공감이었을 것이다.

〈팔려 간 정승 딸 구하고 복 받은 남자〉²⁹⁾ 이야기는 〈죽을 사람 살리고

27) 『대계』 7-9, 779~780쪽.

28) 박상란, 「구전설화에 나타난 빈자들의 욕망과 공생윤리」, 『동악어문학』 64, 동악어문학회, 2015, 43쪽.

고생 끝에 얻은 명당〉 이야기와 비슷한 서사 전개이나 공감의 주체가 받는 복이 명당이 아니라, 도움받은 타자의 노력으로 주체가 성공하게 되는 유형이다. 이 이야기의 주체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남자이고 타자는 정승 딸이지만 청춘과부가 되어 광대 께에게 팔려 간 사람 여자이다. 가난한 남자가 타자인 그 여자를 만난 시점에, 그 여자는 노래며 춤이며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광대 께에게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 사람이 가미안히 생각허녕개 여자는 참 씨게 생긴 여자란 말여? 그래 한 낭군을 생기지 두 낭군을 안 생긴다. 또는 왜 내가 넘우 남자에 술잔을 따려 주랴. 이런 생각 허구서 죽으면 죽어두 앓는다구 허녕개 그 여자가 신통헌 여자여.

〈은혜 값은 여자 中〉³⁰⁾

가난한 남자는 이 여자의 딱한 사정과 자신의 사정이 그러해도 절개를 지키는 모습에 공감을 하게 되고, 이에 꾸어온 돈을 이 여자를 위해 다 내어 주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 후 이 여자는 가난한 남자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여 이 집안을 일으키게 된다. 이 여자가 두 아들을 낳고, 아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가난한 남자의 원 부인이 낳은 두 아들을 잘 가르쳐 성공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초상집 머느리 구한 칠삭둥이 명당〉³¹⁾ 이야기에서는 명당이 복으로서가

29) 〈팔려간 정승 딸 구하고 복 받은 남자〉 설화 이본 현황

순번	제목	출처 (『대계』/첫 쪽 수)	채록지	제보자
1	백 냥의 보은	8-13/ 147	온양면	김원연(여, 65)
2	마령 이진사	8-6 / 383	위천면	정동석(남, 68)
3	상부(喪夫)한 여인 구해주고 출세한 김서방	7-15/ 505	무을면	지세해(남, 80)
4	서른 냥으로 구한 후처	7-10/ 820	명호면	박명훈(남, 61)
5	은혜 값은 여자	4-5 / 740	홍산면	이명순(남, 82)

30) 『대계』 4-5, 743쪽.

31) 〈초상집 머느리 구한 칠삭둥이 명당〉 설화의 이본 현황

아니라 서사의 소재 및 전략으로 사용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 공감의 주체는 공부만 하고 생활력이 없는 가난한 선비이다. 그 가난한 선비가 공감하게 되는 타자는 어느 초상집의 며느리이다. 선비가 가짜 지관 행세를 하며 앉아있을 때 초상집의 며느리가 찾아와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된다. 칠삭둥이를 낳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기에 거짓으로 밋자리 탕을 해달라는 것이다. 가짜 지관인 선비는 초상집 며느리의 마음에 공감하고 칠삭둥이는 밋자리 때문이며, 이 칠삭둥이가 삼정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 지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인자 뜯눈으로 날이 샌디 이거 어쩐 일인가 해석을 해야는디 이거 살 수가 있는가? 이 이집 젊은이

순번	제목	출처 (『대계』/첫 쪽 수)	채록지	제보자
1	영터리 지관이 잠은 명당	5-6 / 736	입암면	우성원(남, 75)
2	억울한 부인 살린 영터리 지관	3-4 / 429	양강면	윤자삼(남, 73)
3	지관 이야기	1-3 / 157	청운면	최순용(남, 73)
4	영터리 지관과 호랑이 명당	5-7 / 171	북면	이대우(남, 70)
5	억울한 며느리 도운 영터리 풍수	3-4 / 838	황금면	남장목(남, 65)
6	쫓겨날 며느리를 구한 영터리 지관	3-2 / 683	남일면	권종복(남, 61)
7	선비의 지관행세	5-4 / 1113	성산면	채귀록(남, 70)
8	팔삭둥이 난 명당터	6-11/ 347	이양면	안재경(남, 71)
9	어설플 풍수질하여 잘 된 사람	7-8 /1153	은척면	강희원(남, 70)
10	어설플 풍수질하여 부자된 사람	7-8 /439	공검면	유우임(여, 66)
11	영터리 풍수와 칠삭둥이를 낳은 며느리	7-10/ 367	법전면	홍병옥(남, 74)
12	풍수로 행세한 선비	2-9 / 754	주천면	이상진(남, 71)
13	풍수의 계약	8-9 / 42	김해시	정수복(남, 64)
14	칠삭만에 해산한 며느리와 서투른 풍수	7-3 / 648	경주시	손계덕(남, 71)
15	풍수가 된 선비와 호미혈	7-7 / 388	강구면	이용근(남, 64)
16	영터리 풍수와 구삭둥이	7-10/ 795	명호면	정세원(남, 63)
17	며느리가 잡아 준 명당	2-2 / 587	신동면	김을손(남, 76)
18	팔삭둥이를 낳은 명당	2-6 / 196	안흥면	한계순(남, 83)
19	한 번 풍수 잘하여 부자 된 선비	7-12/ 79	소보면	이수영(남, 72)
20	가짜 풍수	8-4 / 441	일반성면	옥기봉(남, 72)
21	칠삭둥이 낳을 명당	6-2 / 160	업다면	김정균(남, 88)
22	가난한 양반의 가짜 풍수질	7-16/ 547	장천면	곽형규(남, 67)
23	지관 이야기	1-8 / 547	영종면	조삼성(남, 73)

가 어찌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니 도저히 뭐 생각이 안나.

(〈엉터리 지판이 잡은 명당 中〉³²⁾)

“제가 죽고 살기는 선비님 한 마디에 달렸소.”라고 말하는 칠삭둥이를 낳은 며느리의 말에 가짜 지판은 밤새 고민한다. 결국 호랑이가 일곱 달 만에 새끼를 낳으니 선조들의 뿔자리가 호랑이 형이라고, 칠삭둥이로 낳은 아들은 영의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이러한 가짜 지판의 행동은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순간의 선택은 도덕적 규범보다는 억울한 초상집 며느리를 구하는 개인적 윤리의 선택으로 나타난다.³³⁾ 이에 초상집 며느리는 잊지 않고 선비에게 은혜를 갚는다.

(〈첫날 밤 간부 잡아주고 벼슬한 사람〉³⁴⁾) 역시 힘든 형편 속에서 전혀

32) 『대계』 5-6, 740쪽.

33) 서유석은 판소리 등장인물들이 그 시대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구현하려고 도리어 도덕적 규범을 거스르는 모습에 주목했다. 공동체의 절대적 규범인 도덕이 판소리의 서사적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개인적 선택과 충돌하는 모습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당대 조선 후기의 기존 도덕률이 급변하는 시기로, 그 당대의 다양한 사회 갈등이 서사 곳곳에 드러나고 있으며, 사회 절대 규범으로 간주되는 도덕과 판소리 주인공들의 개인적 윤리의 선택과의 충돌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서유석, 「판소리에서의 도덕적 규범과 윤리적 선택의 의미」, 『한국구비문학연구』 56,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 35쪽.

34) 〈첫날 밤 간부 잡아주고 벼슬한 사람〉 설화의 이본 현황

순번	제목	출처 (『대계』/첫 쪽 수)	채록지	제보자
1	요승을 물리친 사람	8-2 / 255	동부면	진순이(여, 73)
2	천냥 점으로 재물 되찾은 우풍헌	5-5 / 461	신태인읍	오진택(남, 62)
3	천냥 점으로 장원 급제한 선비	6-9 / 609	이서면	김동학(남, 70)
4	정승아들 구하여 급제한 과거꾼	8-10/ 363	부림면	김채관(여, 63)
5	용기장사의 의협심	2-2 / 448	신북면	이준범(남, 62)
6	신방의 중 죽이고 급제하게 된 선비	5-6 / 392	태인면	김길현(남, 76)
7	간부를 죽이고 신랑을 구한 마을 머슴	8-13/ 586	상북면	김묘남(남, 70)
8	가래도치와 박한량	7-6 / 665	달산면	조유란(여, 72)
9	셋 서방 둔 신부	6-12/ 553	득량면	최유단(여, 85)
10	신부의 정부인 중을 퇴치한 한량	7-10/ 486	춘양면	김수진(남, 49)
11	정승 아들 살린 농부	9-2 / 216	노형동	양형희(남, 56)

낮선 타자를 위해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후에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공감의 주체는 벼슬이 하고 싶어 집안 살림을 권문세가에 다 바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떤 사람이다. 각편에 의하면 이 사람은 ‘터전도 없는데(살림도 넉넉하지 않은데)’, ‘육십 냥만 있으면 틀림없이 된다.’, ‘선냥만 있으면 된다.’, ‘서른 냥만 있으면 된다.’ 하는 말에 계속 돈을 바치게 된다. 이 방법은 그가 벼슬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다. 이 사람이 또 돈을 바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타자인, 혼인 첫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된, 무남 독자 초립동이 신랑을 만나게 되고, 신부와 신부의 간부인 중이 함께 초립동이 신랑을 죽일 계락을 짜는 것을 듣게 된다.

이 사람이 인제, 박활량이 가만 듣고 생각해, 분해 죽겠던.

(가래도치와 박한량 中)³⁵⁾

그 계락을 들은 벼슬하고 싶은 사람은 제 일도 아닌데, 신부와 간부의 계락에 분해하고, 초립동이 신랑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간부인 중을 죽여버린다. 초립동이 신랑이 은인이라며 옷자락을 붙잡는데도 한사코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것에서 이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에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가운데 우연히 다시 초립동이 신랑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에 이 사람은 벼슬도 받고 많은 살림도 받게 되는 복을 받는다.

이들 이야기에서 공감의 주체가 타자를 만나게 되는 경위와 시공간 그리고 그 구제 양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 설화들의 공통점은 공감의 주체와 타자가 전혀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에 있는 관계이며, 두 대상 모두 세상을 살아나가기 힘들 정도로 빈자이거나 아니면 고통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미래가 불확실한 존재들이다. 공감 주체의 타자를 향한 이타적인 도움과 이로

35) 『대계』 7-6, 667쪽.

인해 얻게 되는 복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삶의 고통을, 공감의 시공간 속에서 서로 연결됨으로써 타자가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감의 주체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역시 본 연구 대상 설화들의 공통점이다.

공감의 주체가 타자를 공감하게 되는 상황은 복을 바라고 고의로 한다거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이다. 주체 역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전혀 알지 못하는 타자를 공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의 의지로 타자에 대한 공감을 선택했을 때, 타자의 생명 및 상황을 구제할 뿐 아니라 공감의 주체 스스로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그렇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감 주체의 선택과 의지가 발현되는, 타자를 향한 공감의 시공간은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이들의 타자를 향한 순수한 공감의 시공간이 타자들의 삶뿐 아니라 공감의 주체인 그들의 삶의 방향 또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복을 받는다는 것이 향유층들이 함께 공감하는 지점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3. 공감의 시공간의 카이로스³⁶⁾적 의미

성경의 전도서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한 것이다. 이는 상황에 딱 맞는 시점, 기회(Kairos)를 잘 파악하고 사용한다면 행동에 성공할 수 있으니, 현재

36) 고대 그리스의 카이로스는 신을 의미한다. 앞모습은 근육질의 멋있는 몸매, 뒷모습은 반질반질 대머리였는데, 설득하기 좋은 기회란 한순간에 휩 지나가 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를 가리켜 '절묘하게 들어맞은 시점'이라고 하기도 한다. 로마인은 이 신의 이름을 바꾸어 '기회 occasion'라는 뜻의 오카시오 Occasio 라고 불렀다. 상황이나 분위기가 바뀔 때 종종 설득하기 좋은 시점이 찾아온다. 이러한 설득하기 좋은 완벽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카이로스'라고 하기도 한다.

무엇을 할지 잘 파악해서 약속을 잡고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³⁷⁾

앞의 설화들에서 공감의 구조가 나타나는 순간은 물이 흘러가듯 흐르는 시간 속에서 기회를 낚아채는 순간들이다.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의 모순과 횡포 속에서 만난 카이로스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 일어나는 공감의 장소를 공감의 시공간으로써 기회의 시간, 즉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보고, 바로 이때가 공감과 카이로스의 접점이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리고 공감의 질서

시간은 인간이 겪는 경험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경험의 하나이다.³⁸⁾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표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바로 크로노스(Chronos)와 카이로스(Kairos)의 개념이다. 크로노스는 보편적이고, 무한히 흘러가는, 수평적·직선적인 측정 가능한 시간 개념이고, 카이로스는 각 개인에게 적절한 순간, 기회 혹은 초월적인 주관적인 순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 카이로스는 심리적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는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시간 이기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카이로스는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성격의 시간인 셈이다.³⁹⁾

37) 알렉산더 데만트, 이덕임 역, 『시간의 탄생』, 2017, 북라이프, 42쪽.

38)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 윤원철 역, 『시간이란』, 평단문화사, 2013, 10쪽.

39)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

	크로노스	카이로스
장성환(1959) 179쪽	계속된 시간(Space of time)	어떤 정해진 시간(fitting season) 시기 또는 기회(opportunity) (Manual Greek Lecixon of the New Testmnet 인용) 세상 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시도에 의해 시간 적으로 참 좋은 기회 (오스카 쿨만 인용)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시간이 마주치는 그 시점

사람은 어떤 시간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 태어나서,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는 시간의 한 부분을 살고 떠나가기에, 크로노스는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기도 한다. 반면 주관적 시간의 카이로스는 인간의 삶에서 전환점으로 기록할 수 있는 짧고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한다. 기회의 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카이로스는 특별히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로, 신의 구제 계획 중 중심이 되는 사건을 카이로스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윤교찬⁴⁰⁾은 성경의 대표적 인

정태식(2007) 318쪽	연대기적 의미 자연(nature) 주어진(given) 시간 48체제 - 주어진시간	중요하고 의미 있는 때(a critical and meaningful time) 질적 의미 문화(culture) 의미적 시간 바로 그때(the right time) 의미가 가득찬 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행동을 위한 무리익은 시간 기회의 시간 꼭 찬 순간(fulfilled moment)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2년, 1948년 못지않은 풍성한 시간) 획기적인 시대로의 도래를 위한 새로운 결단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시기
아감벤(2010) 186쪽		“남아챌 크로노스 seized chronos” “시간 속의 시간 a time within time”
제이 하인리히 (2010) 382쪽		절묘하게 들어맞은 시점 설득하기 좋은 완벽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윤교찬(2016) 223쪽		카이로스가 시간의 환순간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압축된 '시간 속의 시간'
데만트(2017) 42쪽	지속적인(chronica), 시계(chronographus), 연대기(chronoaxie), 변시성(chronotrop)	상황에 딱 맞는 시점, 기회 -솔로몬 《코헬렛》
김모세(2018) 96쪽	인간의 시간 시간	절대자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 바로 그때 the time
	하염없이 흘러가는 지속의 시간	크로노스의 지속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그 자체로 무의식한 시간의 흐름	크로노스의 무의미에 특별한 의미를 제공하는 순간

40) 윤교찬, 「사도 바울과 벤야민의 메시아주의, 그리고 아감벤의 「동시대성」, 『영어영

물인 바울의 극적 변화의 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연결하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카이로스적 시간의 개념은 종교를 넘어서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바로 그때’의 개념으로 카이로스를 표현하기도 한다.⁴¹⁾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크로노스를 지속적이고, 세속적이며, 연대기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카이로스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기회의 시간이며, 크로노스를 낚아채는 크로노스의 지속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혼돈을 해결해 주는, 질서를 부여하는 시간 즉,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질서의 도입과 추구라고 간주하였다. 원시인이든 문명인이든 인간들은 우주가 카오스일 수가 없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불확실성과 좌절은 참고 견디지만, 무질서는 견뎌내지 못한다고 한다.⁴²⁾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무수한 모순이 존재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행운과 불행,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등의 모순이 존재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선과 악’, ‘부와 빈곤’, ‘지배와 피지배’ 등에서 오는 모순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크로노스의 횡포 속에 나타나는 무질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구비 설화에서는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서사를 전승시킴으로써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감은 기술이기에 교육이 가능하고, 또한 발전이 가능한 영역으로, 공감의 구조를 담은 이 이야기를 전승함으로써 후대에 그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문학21』 28,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5, 123~146쪽.

41) 남정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 카프카의 법 앞에서 나타난 시간 - 」, 『카프카연구』 36, 한국카프카학회, 2016, 55~69쪽, 윤상기, 「카이로스 시간에 대한 사진 작품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등.

42) 정태식, 『카이로스와 텔로스』, 영한, 2007, 13쪽.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감의 시 공간은, 카이로스, 즉 삶에서 만나는 기회의 순간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의지-공감에 의한 의지-가 바로 삶의 질서 유지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2) 공감의 시공간의 카이로스적 의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설화들의 공통점은 공감의 주체와 타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주체의 형편은 타자를 공감할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며, 도움을 받은 타자는 이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기 위한 노력을 하기에, 결국 공감의 주체와 타자는 모두 행복해지는 결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기존에는 이야기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선과 관용에 의한 보은'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다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사의 과정 중에 공감의 구조가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았다.

공감의 주체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타자와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 그 순간 그들이 선택한 타자를 향한 도움은 그들 자신의 선택, 즉 자기의 의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그들은 타자와 함께 사는 기회를 선택한다. 타자와의 만남의 순간을 모른 척했다면 타자들의 삶은 지속되지 않았을 결말이다. 이러한 공감의 주체가 타자를 돕기로 선택하는 순간을 공감이 나타나는 공감의 시공간으로 볼 수 있다. 자신도 넘치지 않지만,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칠삭둥이를 낳아 집안에서 쫓겨나게 될 며느리를 만나고, 신부와 간부가 초립동이 신랑의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그 순간이 공감의 주체들의 공감의 장소, 즉, 시공간인 것이다.

이 순간에 공감의 주체가 보여주는 행동은 아감벤의 동시대인 개념과도 연결된다.⁴³⁾ 동시대인이란 자신의 시대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시대

에 대한 통찰력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이 다. 동시대인은 자신의 시대를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기에 시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그들은 시대의 어둠을 볼 수 있는 자이다. 따라서 시대와 밀착하는 사람들과 달리 동시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⁴⁴⁾ 위의 설화들에서 공감의 주체가 되는 이들은 이렇듯 동시대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 뭐 성명도 알 것 없고 어디 사는 것도 알 것 없고 그저 아무쪼록 안과태평하게 무사히 잘들 사시라.” - 〈보은이야기〉 (대계1-2) 여주읍 설화, 안평국

공감의 주체들은 어려운 자신들의 처지에 필요한, 눈앞의 것들만 쫓는, 시대에 밀착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의 객관적인 시대, 즉 크로노스 속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눈 앞의 돈을 취하고, 타자들을 무시하여 경제적 궁핍을 탈피하도록 종용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힘들다고 판단되는 타자들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동시대인으로 살아감을 보여주고 있다. 후일의 보답을 위해 타자들은 공감 주체의 신분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진정한 동시대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연속적인 시간의 개념 속에서 시대와 밀착된 사람이라면, 그들 자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그 어렵게 벌려온 돈을 타자가 불쌍하다며 다 내어주고, 힘없는 칠삭둥이를 낳은 며느리의 말을 믿고 도와주고, 초립둥이 신랑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는 행위들에 대해 “애 이 매친

43) 아감벤은 『장치란 무엇인가?』에서 동시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동시대인이란 동시대에 속하면서도 자신의 시대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자, 즉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 - 조르주 아감벤, 양창렬 역, 『장치란 무엇인가?』, 난장, 2010, 71쪽.

44) 이혜원, 「김수영 시의 동시대성과 중단의 미학」, 『현대문학의 연구』 5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144쪽.

자식아 우리천 죽게 되구 못 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⁴⁵⁾라는 야단을 들 텐데, 동시대인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더 우선 시하는 것이다.

이렇듯 공감의 주체들은 스스로 선택한 행위와 결단을 통해 해방적인 시간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순간의 결정이 기회의 시간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 주체의 자기 의지, 직접적인 선택에 의한 공감의 시공간이 주체로 하여금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벗어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옮겨가게 한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수반하는 타자를 향한 공감과 이타적인 도움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순수한 공감에 기반한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 보편적인 시간을 거스르며 기회를 낚아채는 순간이 된다. 그 공감의 시공간이 타자의 삶을 살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명당을 얻게 되게 되거나, 벼슬과 많은 살림을 얻게 되기도 하는 등, 공감의 주체 자신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즉, 공감의 시공간은 타자의 혼돈의 삶에 질서를 부여할 뿐 아니라, 공감의 주체 자신의 삶에서도 기대하지 못한 성공의 질서, 그가 꿈꾸어 오던 것보다 더욱 높은 이상의 실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감은 기술이고, 기술은 교육으로써 발전이 가능하다. 이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러 시대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민중들이 서로를 공감 하며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과 일치되어, 어려운 순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규칙이라는 질서가 민중을 지켜주지 못할 때, 그 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질서가 바로, 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혼란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공감의 질서라는 것이다. 혼란의 공간을 채우는 질서의 핵심에 공감, 그리고

45) <보은이야기> (대계1-2) 여주읍 설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다는 가능성이 설화를 매개로 전승되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4. 결론

시대를 아우르며 전승되어 온 구비 설화는 비록 허구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민중들이 살아온 있는 그대로의 삶이 담겨있다. 그중 작중인물 간 공감의 순간을 담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선과 관용에 의한 보은’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다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사의 과정 중에 공감의 구조가 그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았다.

다양한 공감이라는 정의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타자’, ‘타자의 감정’, ‘감정의 전이’, ‘전이된 감정의 이해’, ‘타자의 감정을 전이 받은 공감의 주체’, 그리고 이러한 공감의 공통적 요소에 수반되는, ‘타자의 고통을 해소시키고자 행해지는 노력, 즉 타자를 위한 이타적 도움’이 서사의 대표적 주제가 되는 것을 공감의 구조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설화들을 대상으로 공감이 나타나는 시공간과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와 문학치료 서사 사전을 중심으로, 〈중 구조하고 얻은 명당〉, 〈죽을 사람 살리고 고생 끝에 얻은 명당〉, 〈팔려 간 정승 딸 구하고 복 받은 남자〉, 〈첫날 밤 간부 잡아주고 벼슬한 사람〉, 그리고 〈초상집 며느리 구한 칠삭둥이 명당〉 등에서 이러한 구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 대상이 된 설화들의 공통점은 공감의 주체와 타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주체의 형편은 타자를 공감할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며, 도움을 받은 타자는 이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기 위한 노력을 하기에, 결국

공감의 주체와 타자는 모두 행복해지는 결말이다. 공감의 주체가 타자에 대해 공감을 하고 또한, 이타적인 도움을 발현하게 되는 순간은 종교적인 힘에 의한 것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경우나, 또는 의무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타인을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나타나는, 삶 속에서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혼돈 속에서 온전히 공감의 힘으로,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타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이타적인 도움을 행사하게 된다.

공감의 주체들이 자신의 의지로 타자를 향한 이타적인 도움을 결정하는 장소, 즉, 시공간은, 그가 객관적이고 선형적이며 무한히 흘러가지만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다. 자신도 녀치지 않지만,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칠삭둥이를 낳아 집안에서 쫓겨나게 될 며느리를 만나고, 신부와 간부가 초립동이 신랑의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그 순간이 공감의 주체들의 공감의 장소, 즉, 시공간인 것이다. 그 장소, 그 시공간에서 공감의 주체가 보여주는 행동은 아감벤의 동시대인 개념과도 연결된다. 자신의 시대에 살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맞이하며 살아가지만, 그 시대에 밀착하여 선과 악(인간의 도리)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로부터 거리를 두고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기회의 순간을 낚아채게 되는 것이다.

레비나스 철학의 테제에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나의 삶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⁴⁶⁾

46) 이 무한의 관계에서 타자의 고통이 나의 책임이라는 놀라운 인과관계로 확장하면서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 속에 나의 책임이 있다는 무한 책임을 이끌어낸다. 레비나스에게 무한의 존재인 타자는 놀랍게도 약하고 험벗은 자다. 이 약하고 험벗은 타자의

이처럼 사람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의 순간을 만나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민중들로 하여금 공감의 질서를 통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려는 노력이 구비 설화를 전승시키는 노력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규칙이 간과하고 있는 혼란의 공간을 채우는 질서의 핵심에 공감,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다는 가능성을, 설화를 매개로 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고통에 내가 무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깨달음이 나의 '유한성'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레비나스 사유의 귀결점이다. -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문예출판사, 2004, 15~29, 30쪽.

참고문헌

1. 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문학치료서사사전 (설화) 1, 2, 3

2. 저서 및 논문

김모세, 「모리악과 카이로스의 시간」, 『외국문학연구』 7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8, 95~127쪽.

김영란, 「공감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 『인간이해』 21, 서강대학교생활상담실, 2000, 1~22쪽.

김용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철학』 76, 한국철학회, 2003, 151~180쪽.

나승만, 「구비문학과 상상력-민중들의 이야기 네트워크를 상상한다」, 『구비문학연구』 60, 한국구비문학회, 2021, 5~20쪽.

남정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카프카의 범 앞에서 나타난 시간-」, 『카프카연구』 36, 한국카프카학회, 2016, 55~69쪽.

류동규, 「타자 이해를 위한 ‘공감의 플롯’ 읽기」, 『국어교육연구』 71, 국어교육학회, 2019, 237~272쪽.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 윤원철 역, 『시간이란』, 평단문화사, 2013, 1~223쪽.

박상란, 「구전설화에 나타난 빈자들의 욕망과 공생윤리」, 『동악어문학』 64, 동악어문학회, 2015, 43~73쪽.

박성희, 『공감학 어제와 오늘』, 학지사, 2004, 1~462쪽.

박주영, 「시간의 흔적과 축적을 통한 삶의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브레네 브라운, 서현정 역, 『나는 왜 내편이 아닌가』, 북하이브, 2012, 1~311쪽.

서유석, 「판소리에서의 도덕적 규범과 윤리적 선택의 의미」, 『한국구비문학연구』 56, 한국구비문학회, 2020, 35~64쪽.

조르조 아감벤, 조효원 역, 『유아기와 역사』, 새물결, 2010, 1~264쪽.

조르주 아감벤, 양창렬 역, 『장치란 무엇인가?』, 난장, 2010, 1~189쪽.

알렉산더 데만트, 이덕임 역, 『시간의 탄생』, 북라이프, 2017, 1~712쪽.

윤교찬, 「사도 바울과 벤야민의 메시아주의, 그리고 아감벤의 “동시대성”」, 『영어영문학21』 28,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5, 123~146쪽.

- 윤교찬, 「바울의 ‘지금의 시간’, 벤야민의 ‘지금시간’, 그리고 아감벤의 ‘철학적 고학」, 『현대영어영문학』 60,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16, 221~243쪽.
-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문예출판사, 2004.
- 윤상기, 「카이로스 시간에 대한 사진 작품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 이인경, 「호랑이가 준 보자기 설화 속의 ‘소통·공감·보살핌 윤리」, 『국문학연구』 27, 국문학회, 2013, 233~263쪽.
- 이재룡, 「조선시대 법제도에에서의 공감과 소통정 구조」, 『사회사상과 문화』 21(2), 동양사회사상학회, 2018, 129~162쪽.
- 이혜원, 「김수영 시의 동시대성과 중단의 미학」, 『현대문학의 연구』 5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144쪽.
- 제이 하인리히, 하운숙 역, 『카이로스』, 8.0, 2010, 1~469쪽.
- 정갑업, 「왕양명의 심학(心學)과 공감」,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333~360쪽.
- 정태식, 『카이로스와 텔로스』, 영한, 2007, 1~360쪽.
- 최진형, 「구전설화에 나타난 ‘파격’ -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상황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75~114쪽.
- 한지원,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설화에 나타나는 공감의 양상과 의미 - 혼사 소재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 『우리문학연구』 69, 우리문학회, 2021, 233~265쪽.
- 홍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의 의미와 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회, 2011, 197~226쪽.
- 홍나래, 「희생명당 풍수설화에 나타난 구복(求福)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일고찰 -“사자생손형(死子生孫型)”, “유복자삼정승형(遺腹子三政丞型)”, “재취후손형(再娶後孫型)”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141~175쪽.

ABSTRACT

A study on the form and place of empathy
between the characters in the folktales

: Space-temporality of empathy as a meaning of Kairos

Han, Ji-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 and spatial temporality of empathy between characters in the folktales which includes the structure of empathy.

The tales of 〈The famous place that was obtained after saving the dead〉, 〈The famous place that was obtained after saving the dying person〉, 〈The man who was blessed after saving the daughter of Jeong-seung who was sold〉, 〈The man who held the executive and held a position on the first night〉, and 〈The seven-year-old man who saved the daughter-in-law of the portrait shop〉 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e common feature is that the subject of empathy and the other do not know each other. The subject is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economic and psychological space to sympathize with the other, but the one who received the subject's help remembers it and attempts to repay the favor. It is a happy ending for both the subject of empathy and the other.

The moment where the subject of empathy decides to provide altruistic help towards the other by their own will, namely, time and space, is when he arrives at the kairotic opportunity in the time of Chronos where he is objective, linear, and connected.

Empathy is a skill that people can develop through education. Therefore, these stories can be viewed as a desire for people to empathize with each other through time and to live a humane life even at difficult moments by supporting each other and corresponding with the time of Kairos.

Key Words

Structure of Empathy, Place of Empathy, Chronos, Kairos, Folktale

논문투고일 : 2021.07.26.
심사완료일 : 2021.08.09.
게재확정일 : 2021.08.11.